최태원, 日·越·中 돌며 사회적가치 전파 '아시안 투어'

(SK그룹 회장)

SK그룹 '하노이포럼' 참석

딥체인지 경영사례 등 대안 제시

탄소저감 인센티브 프로그램 소개

17일엔 '난징포럼'도 참석 예정

베트남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1회 '하노이 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중요성을 설파했다.

1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시(市) 총리공관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와 만나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등을 논의한데 이어 9일부터 이틀간 하노이국립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제1회 '하노이 포럼'에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하노이 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SK

이 포럼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이 한-베트남 간 학술 및 교류협력 등을 위해 올해 창립했다.

고등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포럼에 참석한 최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베트남도 올해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의 이슈가 아닌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경보존에 더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경제적가치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SK의 '딥 체인지(Deep Change)' 경영 사례를 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SK 관계사들이 창출한 환경보호 성과를 비롯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중이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 탄소저감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사회적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포럼에는 응웬 베트남 총리와 헬렌 클락 뉴질랜드 전 총리, 응웬 낌 썬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총장, 김도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 김용학 연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6~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니케이 포럼에 참석했던 최 회장은 오는 17일에는 중국 난징에서 개막하는 '제3회 난징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해와 대화: 아·태 공동운명체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러우친졘 장쑤성 서기, 장징화 난징시 서기, 뤼지엔 난징대 총장, 최광철 SK사회공헌위원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9월 베트남 대기업인 마산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9.5%를 4억7000만 달러(약 5300억원)에 매입하는 등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 오브제 공기청정기. /LG전자

삼성전자 갤럭시홈. /삼성전자

카카오 미니. /카카오

"미래의 거실 주인은 누구?"

가전社, 스마트홈 전략 강화

거실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스마트홈 시대를 대비한 발빠른 전략이다. 가전과 휴대전화 단말기, 가구와 자동차까지 지도 거실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스마트 스피커, IT 업계 희망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스피커는 스마트홈 시대 필수품으로 예상되는 기기다. 음성명령을 받아 인공지능으로 판단하고, 연결된 기기들에 명령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스마트 스피커는 인공지능을 핵심 기능으로 작동하는 만큼, IT 업계 활약이 돋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이 만든 '구글 홈'과 아마존 '에코'가 일찌감치 시장에 진입했다. 각각 구글 어시스턴트와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전화와 TV뿐 아니라, IoT 가전에도 연동할 수 있다. 구글홈은 지난 9월 국내에도 출시됐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마트 스피커를 판매 중이다. 네이버는 웨이브와 프렌즈, 카카오는 미니다. 인공지능 이름은 네이버가 클로바, 카카오가 카카오 아이(i)다.

통신 업계도 가세했다. SK텔레콤은 2016년 누구라는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했다. 인공지능 이름도 누구다.

특히 KT 기가지니는 가입자만 100만대를 넘기면서 사실상 국내 최대 스마트 스피커로 자리잡았다. 따로 판매하지는 않지만, 세계 최초로 IPTV 단말기와 연계하면서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가전, 스마트시티를 향해

반면 기존 가전 업계는 스마트 스피커 시장 진출에는 다소 굼뜬 모습이다. LG전자는 작년 씽큐 허브를 출시했지만, 마케팅에 주력하지는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홈을 최근에서야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8(SDC2018)'에서 처음 실물을 공개했을 정도다.

대신 가전 업계는 자사 인공지능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단지 거실을 주도하는 스마트홈을 벗어나, 스마트 시티를 주도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SDC2018에서 인공지능인 빅스비 개발툴을 출시했다.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인 '빅스비 캡슐'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빅스비 캡슐은 빅스비 활용도를 높이면서, 여러 브랜드 기기가 빅스비를 탑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빅스비가 가전 시장에서 OS 노릇을 하게 되는 셈이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IoT 생태계 핵심이다. 스마트싱스는 IoT 연결 도구로, 삼성전자 뿐 아니라 일부 타사 가전까지도 연동할 수 있다.

일부 IT 업계도 이 같은 전략을 따르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최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홈을 출시하고 IoT 생태계 통합에 도전했다. 코웨이와 필립스 등과도 제휴를 맺었다. 아마존은 일찍이 '알렉사 스킬'이라는 방법으로 인공지능 확산을 꾀했다.

LG전자는 전통적인 가구 시장에 주목했다. 가구를 가전에 결합한 프리미엄 브랜드 오브제를 통해서다. LG전자는 오브제가 단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입장이지만, 미래에는 가구도 가전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스피커는 여러 가전 중 하나일뿐"이라며 "브랜드와 형태를 넘어 더 많은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가전 업계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

"수소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

현대車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참석

"전기차·수소차 공존발전 시킬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리더들과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6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무공해 사회 구현과 지속가능 성장'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도 참석했다.

미래 '무공해 사회'의 현실화와 수소에너지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석학,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로 현대차가 주최했다. 토론회는 영국 왕립경제협회 니콜라스 스턴회장의 사회로 맥쿼리 아시아 벤 웨이 CEO, 퓨처맵 파라그 카나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해 진행됐다.

이날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UN은 2030년까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수준의 45%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수소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수소에너지가 교통 부문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성공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그랩 앤서니 탄 설립자 겸 CEO가 6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맥쿼리 벤 웨이 CEO는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에 확신을 주고, 신재생 산업 분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통합적 노력이 바탕이 돼야 정부, 시민사회, 엔지니어 등 사회 전반이 에너지 진화 과정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퓨처맵 파라그 카나 대표는 "정부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김세훈 상무도 패널로 나섰다. 김상무는 "미래 사회는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돼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인류는 배출가스가 없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소는 에너지원의 저장과 유통에서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차 무공해 동력원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뿐"이라며 "무공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만큼 현대차그룹은 이 두 기술을 함께 공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무공해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수소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활동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그랜저·싼타페 곧 '10만대 클럽' 입성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싼타페가 연간 내수 10만대 이상이 팔리는 차종을 가리키는 '10만대 클럽'에 무난히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그랜저는 올해 1~10월 총 9만2491대가 팔려 1위를 달리고 있다. 싼타페가 그 뒤를 이어 8만9558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월평균 판매량은 각각 9249대, 8955대다. 그랜저는 2년 연속으로, 싼타페는 SUV 최초로 10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10만대 클럽 자동차는 2000년대 들어 2003년, 2004년, 2013년,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배출됐다.

2010년에는 쏘나타·아반떼·모닝이 가입했고, 2011년에는 아반떼·모닝·그랜저·쏘나타가, 2012년에는 아반떼·쏘나타가 포함됐다. 2014년에는 쏘나타만 간신히 들어갔고 2015년에는 쏘나타·아반떼, 2017년에는 그랜저·포터가 이름을 올렸다.

기존 10만대 클럽은 세단과 경상용차가 중심이었고 SUV는 없었다. 싼타페는 2015년 9만2928대까지 판매량이 늘었으나 10만대는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SUV 바람을 타고 싼타페는 처음 10만대 클럽에 이어 베스트셀링카에도 도전한다. 신형 모델이 출시된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싼타페가 그랜저를 월간 판매량에서 앞섰다. /양성운 기자